

가요계, '비수기 1月'에 가수들의 컴백 집중되는 이유



“가급적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을 피하려” 가요계는 요즘 1월 비수기임에도 새 음반이 넘쳐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대형 기획사를 위시해 중소 음반제작사 소속 가수들까지 이달 말과 다음달 초까지 컴백과 데뷔 소식을 알리고 있다. 국민의 관심이 평창올림픽으로 쏠리는 기간과 겹치지 않게 신보를 내리다 보니 개막식 전을 앞둔 적정 시기로 잡고 있다. SM엔터테인먼트의 경우 가용 가능한 가수는 모두

컴백을 예고했다. ‘아시아의 별’ 보아와 인기 걸그룹 레드벨벳은 이달 말에 신보를 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동방신기는 일본 돌풍여를 계속 이어가고 후(고) 종현의 안티캐음에도 사이니는 일본 콘서트를 예정대로 진행한다. 슈퍼주니어 역시 이미 활동을 끝낸 터라 SM에서는 보아와 레드벨벳이 새 앨범으로 팬들을 만난다. JYP엔터테인먼트 역시 인기 절정

에 오른 걸그룹 트와이스가 2월 일본 공연에 나서면서 전 미쓰에이 멤버인 수지가 29일 국내 컴백을 알렸다. 수지는 이미 미니 2집 수록곡인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를 미리 공개해 음원 차트를 휩쓸었다. JYP의 기대주인 신인 보이그룹 스트레이 키즈 역시 프리 데뷔라는 타이틀로 정식 데뷔하기 전 단계를 밟으며 인기몰이에 한창이다. 2PM 멤버 육택연의 군복무로 나

이달 말부터 내달 초까지 컴백·데뷔 알러 평창올림픽과 겹치지 않게 개막식 전 발매

머지 멤버들의 개별활동이 활발하며 밴드 데이식스는 3월 일본 진출을 선언하고 만반의 준비에 여념이 없다. YG엔터테인먼트도 가장 인기가 많은 빅뱅이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돐 콘서트를 끝으로 잠시 활동을 중단하는 대신 2년 1개월 만에 아이린이 28일 컴백하며 차트를 강타했다. 인기 그룹 워너 역시 아직 정확한 날짜는 잡히지 않았으나 2월 컴백 목표로 신곡 만들기에 진념하고 있다. 워너의 컴백 일은 올림픽이 끝날 즈음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걸그룹 블랙핑크도 이달 컴백이 예상되는 가운데 아직까지는 이렇다할 신보 소식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 외에도 그룹 인피니트, 디베치, 선미 등이 이미 컴백해 맹활약을 펼치고 있으며 방송 ‘아이돌학교’ 출신들로 결성된 걸그룹 프로미스나인도 정식 데뷔에 인지도를 쌓고 있다. 또 그룹 세븐틴이 다음달 초 컴백을 예고하는 등 가요계는 올림픽 개막 전까지 인기 가수들의 컴백이 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아(BaA)는 오는 31일 라틴 풍의 신곡 ‘내가 돌아’를 발표하며 컴백활동에 들어간다. 2월 1일 ‘별카

운트다운’을 시작으로 2일 KBS2TV ‘뮤직뱅크’, 3일 MBC ‘쇼! 음악중심’, 4일 SBS ‘인기가요’ 등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해 신곡 ‘내가 돌아’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보아의 컴백 스토리를 담은 첫 리얼리티 ‘키워드#보아’는 지난 22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매주 월~금요일 오전 11시 V라이브 및 네이버TV에 공개돼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다. 레드벨벳도 오는 29일 정규 2집 리퍼키지 앨범 ‘더 퍼펙트 레드벨벳’ 발매와 함께 컴백한다. 타이틀곡 ‘베드 보이(Bad Boy)’는 힙합 기반의 R&B 댄스 곡으로 그루비한 신스 윌로디와 무게감 있는 베이스 사운드가 주목성을 더하며 가사에는 서로에게 끌리는 나쁜 남자와 도도한 여자의 이슬이슬한 감정을 담고 있어 음악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지는 미니 2집 ‘페이스 오브 러브(Faces of Love)’의 타이틀곡 ‘홀리데이(HOLIDAY(Feat. DPR LIVE))’로 오는 29일 컴백한다. 신곡 ‘홀리데이’는 컴백을 앞둔 수지가 새롭게 선보이는 스타일의 노래로 편안하고 나른한 느낌의 베이스 백(Laid back) R&B 곡이다. 수지는 이미 선공개된 신곡 ‘다른 사

람을 사랑하고 있어’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JYP 특급신인 스트레이 키즈는 이미 지난 8일 공개한 프리 데뷔 앨범 ‘믹스테이프(Mixtape)’로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필리핀 등 4개국 아이튠즈 앨범 차트 1위에 오른 정도로 파괴력을 보여주고 있다. 아직 정식 데뷔도 하기 전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의 뜨거운 인기를 증명해 보였다. 자신들만의 차별화된 개성과 자유분방함을 지향하는 그룹 스트레이 키즈는 방찬, 김우진, 이민호, 서창민, 황현진, 한지성, 필릭스, 김승민, 양정인 9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의 정식 데뷔가 기대되고 있다. 2015년 9월 15일 데뷔한 7인조 보이 그룹 아이콘은 정규 1집 발매 이후 국내 활동이 뜸한 편이었으나 27일 컴백곡 ‘사랑을 했다’ 발표 후 팬들의 호응이 이어지고 있다. 3년여 만에 가요계로 돌아온 뮤지션 김동률의 컴백도 화제를 모았다. 김동률은 지난 11일 새 앨범 ‘답장’을 발표한 후 주요 음원 차트에서 1위를 목석하며 팬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김동률은 차트 1위에 대해 ‘앨범이 나오고 하루 동안은 소위 ‘차트 올킬’이라는 것도 해 보았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순위에 연연하지 않아서 좋게 다짐해 놓고도 막상 좋은 결과를 보게 되니 정말 기분이 좋더군요’라며 ‘차트 올킬’ 소감을 전할 정도였다.

‘무한도전’ 박명수X조세호, 동반입대 최고의 1분

‘무한도전’ 박명수 조세호가 ‘박이병-조이병’으로 변신해 ‘웃음 썩 폭격’을 터트렸다. 두 사람은 특집 ‘1시간 전’의 미션으로 최정방 태풍 부대에 동반입대를 하게 됐다. 두 번째 입대를 한 박명수는 ‘구명병사’에서 ‘벙글이병’으로 한층 더 강력한 웃음 폭탄을 선사했고, 조세호는 훈련 중 뜻밖의 ‘스나이퍼’ 본능을 폭발시켰다. 두 사람의 활약은 시청자들의 눈길을 제대로 사로잡으며, 토요일 전체 예능프로그램 중 시청률 1위를 기록했다. 또한 유재석은 국내 최대규모의 출렁다리 위 청소를 정준하는 한강에서 10km 마라톤 완주 미션을 받았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온몸으로 자신들의 한계에 도전해 열정을 뽐낸 멤버들의 모습은 시청자들의 극찬을 끌어들였다. 지난 27일 방송된 MBC 리얼버라이어티쇼 ‘무한도전’ (기획 김태호 / 연출 임경식, 김선영, 정다희 / 작가 이연주) 555회에서는 유재석-정준하-박명수 조세호가 특집 ‘1시간 전’ 미션을 수행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28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무한도전’은 전국 기준 14.3%, 수도권 기준 14.4%를 기록했고, TNMS 수도권 기준으로는 16.8%를 기록해 토요일 전체 예능프로그램 중 시청률

부동의 1위를 차지했다. 또한 박명수와 조세호가 완주미션을 하고 비무장지대에서 마일즈 훈련을 펼치는 모습(19:26~19:27)은 17.0%로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특집 ‘1시간 전’ 두 번째 이야기의 첫 주자는 유재석이었다. 안대와 헤드폰을 착용하고 끝없는 계단을 올라 도착한 곳은 바로 상공 100m, 길이 200m로 국내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원주 소금산의 출렁다리 앞이었다. ‘무한도전’의 대표적인 ‘겹쟁이’인 그는 눈 앞에 펼쳐진 민을 수 없는 상황에 분노를 터트렸다. 유재석의 미션은 관광객이 입장하기 전 짜리미로 출렁다리의 청소를 깨끗이 마치는 것이었다. 유재석은 출렁다리 위에서 사투를 벌이듯 풍뎉기 소리와 도망을 무한 반복하며 괴로워했다. 유재석은 자신을 촬영하기 위해 뒤따라오는 제작진을 향해 “움직이지 마!”라며 역정을 내는가 하면, 출렁다리 위에서 풍뎉기 소리를 더욱 웅장하게 만드는 김태호 PD를 향해 분노를 터트렸다. 유재석은 마치 누가 쫓아 오기라도 하듯 출렁다리 위에서 썰매 추격전을 펼치며 간신히 청소를 마쳤는데, 너무도 태연하게 출렁다리 위를 지나가는 관광객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출렁다리에서 나온 그는 “나 집에 가서 바지 살펴봐야 해요”

라고 소감을 전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 정준하는 굉장 인 한강에서 10km 마라톤에 도전했다. 정준하는 경우 제작진과 만나자마자 ‘1시간 전’ 카운트가 시작됐고, 마라톤 출발 10분 전 미션을 확인해 당황스러워할 겨를도 없이 달리기 시작했다. 정준하는 수많은 시민들 사이에서 파이팅을 외치며 1시간 10분 30초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10km를 달려 보는 이들의 박수를 끌어들였다. 특히 정준하는 미션 수행에 앞서 2018년을 활기차게 시작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던 터라 마라톤 완주를 성공적으로 마친 그의 모습은 더욱 의미가 있었고, 완주 소식을 가족에게 전하는 그의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훈훈함을 선사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박명수의 ‘1시간 전’ 미션이 펼쳐졌는데, ‘태풍부대 자대 배치 1시간 전’으로 그토록 바라왔던 군대에 재입대하는 것이었다. 다른 멤버들과 달리 조세호와 함께 동반 입대하며 더욱 기대를 끌어올렸다. 낮선 단계 생활과 힘든 군 훈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혼자보다는 둘 이상이 함께 하는 것이 좋다는 군의 제안으로 박명수가 조세호를 섭외하게 된 것. 조세호는 ‘동장군’ 기상캐스터에 이어 또다시 ‘1시간 전’ 미션을 받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현장에서 만난 박명수의 모



습에 더 크게 놀리는 모습으로 웃음을 자아냈다. 먼저 도착한 박명수는 미션 상황을 파악하고 연병장을 달려 촬영하듯 도망을 치기도 했지만 결국 조세호와 함께 태풍부대에 입대하게 됐다. 박명수는 특집 ‘진짜사나이’ 편

에서 실수를 거듭하며 ‘구명병사’의 모습을 보여준 것에 이어 이번 진입 신고에서도 수차례 말을 더듬으며 ‘벙글이병’의 면모를 뽐냈다. 박명수는 긴장감 넘쳤던 진입신고에 이어 생활관에 들어가 자기소개를 하면서도 “안녕 난 박명수 이

병이야”라며 계급을 파괴하는 파격적인 첫인사를 선보이며 보는 이들을 아찔하게 만들었다. 반면 조세호는 “태풍의 스나이퍼 되겠습니다”라며 짜릿짜릿한 목소리로 각오와 포부를 전해 박명수와는 상반된 모습을 보여줬다. 박명수와 조세호는 기초 체력 훈련을 마치고 고난도의 마일즈 실전 훈련에도 참여해 뜻밖의 활약을 보여줬다. 두 사람은 완주미션을 하고 비무장지대를 뛰어다니며 포탄 대비 및 방독면 착용 훈련, 지뢰 탐지, 개월지 돌과 훈련을 받았다. 박명수는 지뢰를 밟고 3번에 걸친 경상을 입으면서도 절대 죽지 않는 불사신으로 활약을 펼쳤다. 조세호도 아침부터 시작된 고된 훈련에 힘들어했지만 기민한 발놀림과 적군을 일망타진하는 스나이퍼의 본능을 발산하며 보는 이들을 놀라게 만들었다.

‘짬내투어’ 박나래, 가성비비 여행

박나래가 가성비 좋은 여행 계획으로 ‘짬내투어’ 틀을 짰다. 지난 27일 밤 10시 30분 방송된 tvN ‘짬내투어’에서는 최종 우승을 차지한 박나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박나래는 세 번째 설계자로 나서 홍콩 3일차 여행을 맡았다. 그는 음식에서 압도적인 지지

를 받았다.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홍콩 음식을 맛보는 것은 물론이고 배까지 든든하게 채울 수 있는 나래투어는 모두를 만족시켰다. 하경환은 1일차 여행과 2일차 여행, 그리고 3일차 여행을 비교하며 ‘짬내투어’라고 해서 아끼는 짬내 알

았는데 아니었다며 나래투어에 유독 만족감을 드러냈다. 나래투어는 총집 53집이라는 높은 점수로 최종 우승을 하게 됐다. 그간 박나래는 여행을 좋아하는 매니아였지만 늘 여행 운이 따라주지 않아 매년 2등에 머물렀다. 아쉬움이 큰 상황, 박나래는 삼수 끝에 드디어 최종 우승을 하며 허경환과 함께 스포 러쉬리를 즐겼다.

오늘의 순세 2018년 1월 29일 월요일 (음력 12월 13일)



▶**경책** 모든 사람이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사람 사귀는 것을 신중히 하라. 황제 역시 사람으로 인한 것이다. 어떤 사람도 만나느냐에 따라 슬픔과 즐거움이 있다. 4, 8, 10월생 지혜롭게 처하라.



▶**사계**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어도 마음이 항상 좁고 초조한 상태. 마음이 비어있으니 어느 것이든 만족감을 찾지 못하는 격. 서로 마음을 털어놓고 진실을 보일 때 모든 일 순조롭고 편안해진다. 7, 8, 9 성씨 믿는 마음을 가지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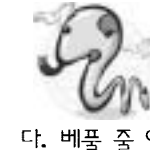
▶**홍명애** 지금까지 암울했던 일들을 모두 떨쳐버리고 밝은 내일을 열어나갈 운이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 본인을 믿어주는 상대가 실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때 최상의 날이 될 듯.



▶**경내외** 그동안 힘들었던 일들이 결실을 볼 시기다. 더욱 분발하고 현실에 충실하라. 남의 눈치만 보면서 움츠러들지 말고 소신껏 행동하라. 8, 9, 10 성씨는 용기가 필요할 때다. 교제하는 일 있으면 길한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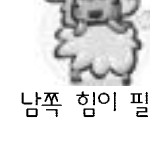
▶**용띠** 모임도 좋고, 여행도 좋지만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자신을 나타내려 하지 말라.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될 듯. 1, 3, 5월생 고민이 많구나. 혼자만 알고 있는 것 같으나 남이 더 많이 알고 있음을 알라. 마음을 비우고, 가정에 신경을 쓸 때다.



▶**진짜** 서로 경쟁하는 것보다 협조해서 해결하는 것이 좋다. 경솔히 행동하지 말고,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라. 내 것으로 생각해 멋대로 하다가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 다. 베풀 줄 아는 아량이 필요하다.



▶**말띠** 가정이 있는데 다른 생각과 행동을 하면 어려움만 다칠 뿐이다. 말을 할 때는 고개를 잘 잡아야 떨어지지 않고 달릴 수 있는 법. 3, 8, 12월생 맘 흔들 대가로 서서히 풀려 갔다.



▶**양띠** 마음 같아서는 하늘의 별도 따올 것만 같으나 막상 시작하면 마음대로 되지 않아 답답할 뿐이다. 가족과 함께 단결하는 것이 필요하니 대화의 장을 열라. 7, 8, 9 성씨는 남쪽 힘이 필요.



▶**원숭이** 쉽게 벌린 일이 끝내 힘이 부치는 것은 노력이 부족한 탓으로 알라.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해야 서로 갈등하지 않는다. 8, 9, 10 성씨 책임 있는 언행이 요구되니 매사 신중히 하라. 붉은색으로 단장.



▶**닭띠** 남이 보는 것과 달리 부부가 만나기만 하면 싸우니 너무 심각하다. 행방이 조금씩 양보하며 이해하라. 5, 7, 12월생 숨겨둔 사람이 있다면 멀어질 시기가 오고 있음을 알라.



▶**돼지** 아랫사람을 다룰 때 단점을 지적하기보다 장점을 칭찬하고, 스스로 단점을 깨우치게끔 이끌어야 한다. 참으라.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자신의 마음에 들 순 없는 법이다.



▶**개띠** 숨겨진 본인 능력을 마음껏 활용하는 시기인 가운데 자만심만 버린다면 곳곳에서 좋은 소식이 들리겠다. 작게 투자해 크게 소득을 얻는 호운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원망하는 것은 미련한 행위임을 알라. 기혼자는 가정에 충실할 것.